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Use in Narrative Tasks in Preschool Children: A Preliminary Study for AAC Application

Hye-Jung Song^a, Yang-Min Song^b, Hyun-Ju Park^a

^a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b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Correspondence: Hyun-Ju Park, PhD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 13120, Korea
Tel: +82-31-750-8881
Fax: +82-31-750-8837
E-mail: phj8747@gachon.ac.kr

Received: July 5, 2015
Revised: August 24, 2015
Accepted: September 4, 2015

This work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Objectives: Despite the continuous body of research on vocabulary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studies on vocabulary use in young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ocabulary use patterns in preschool children by collecting narrative data, and analyzing it by word units. **Methods:** The subjects were 53 norma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4 and 6 (26 boys and 27 girls). Subjects were asked to carry out three narrative production tasks (retelling a story, personal experience, and script). Produced utterances were analyzed for high frequency words according to task type and age group, percentage of core vocabulary in the total vocabulary, percentage of structure words and content words in the core vocabulary, and use and percentage of fringe vocabulary in total tasks. **Results:** The appearance of high frequency words differed according to task type and age group. Core vocabulary consisted of 72% of the total word production, representing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vocabulary. The ratio of structure words to content words was 19:81, showing that content words were more dominant, while the percentage of fringe vocabulary of the total vocabulary was much lower at 7.45%. **Conclusion:** Vocabulary use in children is affected by the type of task.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collected narrative utterances to analyze the core vocabulary in preschool children.

Keywords: AAC, Narrative, Core vocabulary, Fringe vocabulary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삶의 요소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말이며, 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에 의존할 수 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거나 자신의 도구에 미리 저장된 어휘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 대상자에게 얼마나 적절한 어휘가 선택되었느냐는 결국 AAC 중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Beukelman & Mirenda, 2005, 2013).

AAC 중재의 목적은 그 대상자가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자(effective and efficient communicator)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AAC 전문가들은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들은 특히 초기 중재의 철학 속에서 어린 아동의 AAC 중재 프로그램에는 예외 없이 구어와 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긴 이야기, 즉 내러티브 산출을 위한 어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Beukelman & Mirenda, 2005, 2013).

내러티브(narrative)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생성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실제 또는 허구의 성격을 포함할 수 있으며(Crestani, Clendon, & Hemsley, 2010), 일반적으로 개인적 내러티브(personal narratives), 가상적 또는 상상적 내러티브(fictional or fantasy narratives), 스크립트(scripts)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내러티브란 개인의 과거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단일 기억을 이

야기하는 것이다(Choi & Han, 2013). 가상적 내러티브란 일반적으로 실제 경험하지 못하는 허구적인 가상의 소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 말하는 것이다(Shapiro & Hudson, 1991; Trabasso & Nickels, 1992). 스크립트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표상을 의미한다(Kim, 2013).

어린 아동은 언어습득 이전부터 부모가 책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수많은 상황에서 내러티브를 접하게 된다. Lee (2004)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한다.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은 일관적인 연결성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아를 구성해 나가며, 타인의 삶과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Yeom (1999)은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식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써서 관계적인 것을 개념화하기에 내러티브는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문화 전수의 측면에서도 단순한 사건이나 경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내러티브는 미래의 문해 능력과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높은 수준의 언어 기술일 뿐 아니라(Crestani et al., 2010; Hughes, McGillivray, & Schmidke, 1997; Kaderavek & Sulzby, 1997; Soto & Hartmann, 2006), 교실 내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교우관계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Crestani et al., 2010; Waller, 2006), 어린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내러티브 유형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AAC 중재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장애아동들은 경험과 기회 부족으로 인해 내러티브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한적인 어휘 접근의 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Crestani et al., 2010). 이는 결국 학업과 사회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경험과 기술 발달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어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AAC 중재를 위한 어휘 수집과 선택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자료는 핵심어휘(core vocabulary)와 부수어휘(fringe vocabulary) 목록이다. 핵심어휘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낱말과 메시지를 말하며(Beukelman & Mirenda, 2005), 이 목록에는 기본적인 욕구 표현이나 간단한 인사말 등의 기능적인 단어 및 구절들이 포함된다(Grove & Waker, 1990). 주로 1,000개 낱말 당 0.5-5회 정도의 출현율을 근거로 삼는다(Kim, Park, & Min, 2003; Lee, Kim, & Park, 2005). 부수어휘는 특정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휘 낱말과 메시지를 말한다. 이 목록에는 개인이 선호하는 표현, 특정인의 이름, 장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핵심어휘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개별적인 아이디어 및 메시지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Beukelman & Mirenda, 2005). 이상적으로 AAC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휘 항목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이들 두 어휘 목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AAC 중재를 위한 어휘 선택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핵심어휘 목록을 제시한 국내 연구는 Kim 등(2003)과 Lee 등(2005)에 불과하다. Kim 등(2003)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과 일상생활에서 자발화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학령기 아동 및 성인의 핵심어휘들 간에 53%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고빈도 25개 어휘는 전체어휘의 34%를, 50개의 어휘는 전체어휘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일반 아동의 대화를 수집해 분석한 Lee 등(2005)에 따르면, 학교상황에서 산출한 아동의 핵심어휘는 전체어휘의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수어휘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또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Lee et al., 2005)”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AAC 어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주로 특정 주제 및 상황에서 어휘 사용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과 성인이 주로 연구대상자로 참여하였고 설문조사나 대화를 수집해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Park (1996)은 설문조사를 통해 뇌성마비 학생의 어휘를 수집하였다. Park (1999)은 다양한 환경에서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기능적 어휘를 수집하였다. Cheon (2000)은 AAC체계 활용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어휘 및 문장을 조사해 장소에 따라 어휘일치도와 어휘다양도, 문장 범주 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AC 사용자의 내러티브 중재를 염두에 두고, 내러티브 과제를 이용해 핵심어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 또한 수행되기 시작했다. 그 예는 Caton, Crowe와 Haar (2003), Crestani 등(2010)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내러티브 과제를 제시하고 어휘를 수집한 후 발화당 평균 단어 수와 총 단어 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Crestani 등(2010)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원작에 포함된 어휘와 아동이 산출한 어휘를 직접 비교하였다. 이들은 5-6세 일반 아동으로부터 총 145개의 내러티브 샘플을 수집하여, 총 6,679개의 어휘를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적은 핵심어휘 173개가 총 어휘 수의 많은 부분(80%)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과제를 통해 수집한 핵심어휘는 대화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존 핵심어휘 목록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내러티브 산출을 위한 어휘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러티브 과제를 통한 어휘 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어휘 연구를 종합해보면, 주로 학령기

이후 일반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비교하거나 설문조사와 대화제를 통한 핵심어휘 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어휘 목록은 오래 전에 발표된 자료들로서 AAC 중재를 위한 어휘 선택 과정에서 문화와 시대적 민감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령 적절성을 고려하기에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학령전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AAC 중재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어휘 관련 정보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AAC에 의존하는 아동들의 내러티브 산출을 돕기 위한 적절한 어휘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4-6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과제를 이용해 발화를 수집하여 어휘 낱말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핵심어휘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이 내러티브 과제를 포함하지 않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핵심어휘 목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AAC 사용 아동의 내러티브 산출을 돕기 위한 어휘 항목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내러티브 과제 유형 및 연령집단(4-6세)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는 무엇인가?
- 2) 내러티브 과제 전체에서 나타나는 핵심어휘는 무엇인가?
- 3) 핵심어휘에서 나타나는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어떠한가?
- 4) 부수어휘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 지역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학령기 이전 4-6세 일반 아동 60명(남 30명, 여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 의해 정상발달로 보고되었으며,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인 정상 발달 범주에 속하였고, 장애가 있거나 행동문제를 지니지 않은 아동들이었다. 60명의 아동에게 내러티브 과제를 주고 이들의 발화를 녹음하였으나 발화 수가 적고(과제당 10낱말 미만), 음질 문제로 전사가 어려운 아동의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세 집단 19명(남아 10명, 여아 9명), 5세 집단 18명(남아 8명, 여아 10명), 6세 집단 17명(남아 9명, 여아 8명) 등 총 54명(남 27명, 여 27명)의 아동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1 (N=19)	Group 2 (N=18)	Group 3 (N=17)
Age (mo)	54 (3.09)	65 (3.01)	77 (2.93)
Gender (male:female)	10:9	8:10	9:8
REVT (standard score)			
Receptive vocabulary	60.05 (4.04)	67.65 (4.21)	77.05 (4.49)
Expressive vocabulary	58.10 (4.61)	66.85 (4.99)	75.95 (3.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or number.

REVT =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검사기간

본 연구는 REVT와 자료수집을 포함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아동 당 30-45분 정도의 발화가 녹음되었다.

연구 도구 및 장소

아동의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SONY ICD-UX543)를 사용하였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주변 아동의 말소리나 다른 소음들로 인해 대상 아동의 발화를 녹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빈 교실에서 일대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

4세 집단 아동에게는 두 가지 내러티브 과제(개인적 경험말하기와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를 제시하였고, 5세와 6세 집단 아동에게는 세 가지 내러티브 과제(이야기 다시 말하기, 개인적 경험말하기, 이야기 구성하기)를 제시하였다. 이는 Hughes 등(1997)의 내러티브 유형 분류에 따른 것으로 과제 간 중복되는 내용은 없었다. 과제 제시 순서는 아동에 따라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하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이야기를 선정할 때,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를 제외하였고, 창작동화 가운데 인과적 사건들로 연결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결과, Lee (2003)의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30문장 이내로 간추려 아동에게 들려준 후 이야기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6가지 질문을 하여 이야기에서 언급된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부정확하게 답하거나 답을 모를 경우 연구자가 정확한 답을 알려 주었고, 아동에게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려주기 전에 연구자는 아동에게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 목소리를 녹음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아동에게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어휘를 분석하였다.

Figure 1. Photos for personal experience task: (A) flight, (B) to go to see a doctor.

개인적 경험 말하기

아동에게 10장의 사진(비행기, 상처, 수영장, 병원, 조부모, 버스, 생일파티, 놀이터, 치과, 산타; Figure 1)을 보여 준 뒤 사진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다(예: “○○야, 병원에 가 본 적 있니?”). 아동의 발화는 이후 분석을 위해 모두 녹음하였다.

이야기 구성하기

일련의 연속적인 그림카드 4컷(총 5개의 주제: 꼬마와 솜사탕, 게임과 지각, 고양이와 생선, 크리스마스와 선물, 토끼와 동굴; Figure 2)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그림을 연결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줄 것을 지시한 뒤 이를 녹음하였다.

발화 분석

녹음을 통해 수집된 아동의 발화는 ‘한글 2010’에서 전사한 후, 전사한 어휘의 오류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전사한 자료는 이후 ‘Microsoft Excel’에서 축약어휘로 전환하고 빈도와 빈도율을 산출하였다. 핵심어휘는 1,000 낱말 중에서 0.5번 이상 출현한 낱말(Beukelman, Jones, & Rowan, 1989)로 세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선정하였다. 녹음된 발화는 낱말 단위로 분석하여 전사원칙에 따라 입력하였으며, 입력된 낱말은 축약어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Appendix 1 참조). 전사와 축약어휘 전환 원칙 및 어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사원칙(Stuart, Vanderhoof, & Beukelman, 1993)

- (1) 반복되는 어휘는 그대로 포함시켜 전사하도록 한다.
- (2) 실제 어휘가 아닌 발성은 전사 시 표시하도록 한다.
- (3) 숫자는 전사하도록 한다.
- (4) 고유 명사도 전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이때 호칭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 (5) 전사 시, 대화에서 사용된 문장이 불분명하면 일부 어휘를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전체를 전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Figure 2. Pictures for script narrative task (cotton candy).

- (6)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사한 어휘의 오타를 확인하도록 한다.

축약어휘 전환 원칙(Lee et al., 2005)

- (1) 동사는 시제와 높임말의 구분 없이 원형으로 나타낸다.
- (2) 동사와 접속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동사와 접속사를 원형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 (3)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쓰인 경우는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고 나타낸다(예: 가져가다, 가져오다).
- (4)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모두 동사 전체의 뜻에 기여하는 경우, 각 동사의 원형을 각각 기록한다(예: 집어주다 → 집다+주다, 올려두다 → 올리다+두다).
- (5) 존대어는 평어의 형태로 나타낸다.
- (6) 친구나 형제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 ‘사람이름’으로 기록한다. 단, 위인이나 방송인 및 유명인, 영화나 만화에 등장한 인물 이름은 그대로 표기한다.
- (7)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언어음(言語音)은 축약어휘에서 제외한다.
- (8) 다른 품사에서 전용되어 습관적으로 빈번히 쓰이는 간투사는 축약어휘에 제외한다.
- (9) 수는 한글로 읽었을 때 의미를 담고 있는 단위로 나누어 기록한다.
- (10) 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는 축약어휘에서 제외하며 어휘형태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휘 분석

- (1) 빈도 분석: 낱말이 출현한 빈도를 중심으로 과제 및 연령 집단별 고빈도 순위를 산출하였다.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였다.
- (2) 핵심어휘 선정: 1,000 낱말 중에서 0.5번 이상 출현하면서 세 연령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낱말을 핵심어휘로 선정하고, 빈도 순으로 제시하였다.
- (3) 핵심어휘가 전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석: 핵심어휘 중 상위 10, 50, 100, 150, 200개의 고빈도 어휘가 전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의 적은 어휘가 전체 어휘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 (4)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 분석: 핵심어휘를 중심으로 구조어(대명사, 관형사, 접속사)와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 (5) 부수어휘 선정: 전사한 자료에서 핵심어휘를 제외한 어휘 가운데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관심사항 및 선호도, 환경 및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반영해주는 어휘를 부수어휘로 선정하였다.

신뢰도

연구자는 수집된 발화가 전사 및 축약어휘 전환 원칙에 의해 신뢰롭게 처리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두 명의 분석자(언어병리학 석사 수료)는 사전에 전사 및 축약어휘 전환 원칙을 숙지한 상태였으며 전체 자료 중에서 무작위로 20%를 선정해 전사하고 축약어휘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분석자 간 일치도는 각각 93.3%, 95.1%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과제 및 연령 집단별 고빈도 어휘

과제별 고빈도 어휘

내러티브 상황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를 산출하기 위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개인적 경험 말하기,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로 나누어 고빈도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고빈도 어휘는 ‘개구리’, ‘그래서’, ‘엄마’, ‘하다’, ‘장화’, ‘하나(인물)’, ‘있다’, ‘전화’, ‘할머니’, ‘그런데’ 등으로 나타났다. 원작과 중복되지 않는 어휘 목록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어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였다. 전체 낱말수(NTW) 1,650개 중 원작의 어휘와 중복된 낱말 수는 1,199개로 72.7%였으며, 다른낱말수(NDW) 261개 중 중복된 낱말 수는 133개로 51.0%를 차지하였다.

개인적 경험 말하기 과제를 통해 산출된 어휘 중 서로 다른 10개의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고빈도 어휘는 ‘있다’, ‘하다’, ‘가다’, ‘그런데’, ‘나’, ‘때’, ‘그래서’, ‘그리고’, ‘타다’, ‘엄마’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내러티브 과제와 비교했을 때 ‘나’와 ‘때’의 출현이 두드러졌다. 아동에게 제시한 10개의 주제 중 가장 많은 어휘를 이끌어 낸 주제는 ‘수영’과 ‘조부모’에 관련된 사진이었으며, ‘비행기’와 ‘버스’ 사진을 보고 산출한 어휘 수가 가장 적었다.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에서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있다’, ‘그런데’, ‘가다’, ‘하다’, ‘먹다’, ‘그리고’, ‘주다’, ‘솜사탕’, ‘토끼’ 등의 순이었다.

과제별 고빈도 어휘를 살펴보면, 과제의 특성이 반영되어 특정 내러티브 과제에서만 출현하는 어휘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하나’, ‘뽕보할머니’, ‘개구리’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만 출현하였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은 개인적 경험 말하기 과제에서만 나타났다. ‘토끼’, ‘고양이’, ‘솜사탕’은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에서만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와 같은 접속 부사와 ‘하다, 가다, 있다’와 같은 동사는 모든 과제에서 산출되어 내러티브 과제 수행에 중요한 어휘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과제별 고빈도 어휘는 Appendix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령 집단별 고빈도 어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낱말수(NTW)와 함께 다른낱말수(NDW)가 증가하였으며 어휘다양도(TTR)는 적은 차이를 보였다. 5세 집단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산출된 다른낱말수(NDW) 126개 가운데 중복되지 않는 어휘는 75개로 59.5%였으며, 6세 집단의 경우 다른낱말수(NDW) 135개 가운데 중복되지 않는 어휘는 89개로 65.92% 수준으로 원작에 포함된 어휘의 영향을 덜 받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시간에 관련된 어휘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였고, ‘이’, ‘그’, ‘저’와 같은 관형사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Appendix 3 참조).

핵심어휘

내러티브 상황에서 나타나는 4-6세 아동의 핵심어휘를 산출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이야기 다시 말하기, 개인적 경험말하기, 이야기 구성하기)에서 수집한 축약어휘를 종합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있다’, ‘그런데’, ‘하다’, ‘가다’, ‘그래서’, ‘그리고’, ‘나’, ‘엄마’, ‘때’, ‘주다’ 등이 상위 핵심어휘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핵심어휘 목록은 Appendix 4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ure 3. Percent of content words and structure words.

핵심어휘가 전체낱말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구조어와 내용어 비율

핵심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다른낱말수(NDW)는 212개로 아동의 전체 발화에서 산출된 어휘의 다른낱말수(NDW) 5,761개의 3.72%에 불과하지만, 핵심어휘가 전체낱말수(NTW)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이었다.

아동이 산출한 고빈도 어휘 중 1,000 낱말당 0.5번 이상 출현한 핵심어휘의 품사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핵심어휘의 다른낱말수(NDW)에서는 명사 105개(49.06%), 대명사 8개(3.74%), 동사 62개(29.90%), 부사 21개(9.81%), 형용사 11개(5.14%), 관형사 4개(1.87%), 기타 1개(0.47%)로 나타났다. 핵심어휘의 전체낱말수(NTW)에서는 명사 4,653개(36.98%), 대명사 612개(4.86%), 동사 4,476개(35.58%), 부사 2,295개(18.24%), 형용사 431개(3.43%), 관형사 103개(0.82%), 기타 11개(0.09%)로 나타났다.

총 12,565개의 전체 어휘 중에서 명사, 동사, 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8%로 내러티브 상황에서 아동은 명사, 동사, 부사 범주의 어휘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조어(대명사, 접속사, 관형사)와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의 핵심어휘에서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35:65로 나타났고 50개의 핵심 어휘에서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25:75로 나타났다. 100개의 핵심어휘에서는 21:79의 비율이었고, 150개의 핵심어휘에서는 20:80이었으며, 200개의 핵심어휘에서는 19:81로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가 높을수록 구조어 비율이 높은 반면 어휘 수가 증가할수록 내용어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과제에서 나타나는 부수어휘와 그 비율

내러티브 과제에서 4, 5, 6세 아동이 산출한 부수어휘와 그 비율

을 알아보기 위해, 전사한 자료를 근거로 아동이 선호하는 활동 및 장소, 표현을 반영하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아동들이 산출한 부수어휘의 전체낱말수(NTW)는 1,295개로 전체 어휘의 7.453%를 차지하였고, 다른낱말수(NDW)는 479개로 다양한 어휘들이 부수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어휘 목록의 구체적인 예는 Appendix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AC 사용 아동의 내러티브 산출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어휘자료를 얻기 위해, 4-6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세 가지 내러티브(이야기 다시 말하기, 개인적 경험 말하기,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를 사용해 발화를 수집하고 어휘를 분석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과제 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고빈도 핵심어휘와 부수어휘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별로 산출된 고빈도 어휘는 내러티브 과제의 유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나타난 어휘(NDW)는 원래 이야기에 포함된 어휘의 51%로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는 AAC 사용자가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자 할 때, 자신의 AAC 체계에 원래 이야기에 포함된 어휘들만을 지니고 있을 경우 이야기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원래 이야기 간 중복되지 않은 어휘 중에서는 ‘그래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경험 말하기 과제에서는 ‘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른 내러티브 과제와 비교했을 때 개인적 경험 말하기 과제에서는 ‘나’와 ‘때’의 빈도가 특히 높았다. 따라서 내러티브 과제의 유형이 어휘의 출현 빈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AC 중재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자 할 때 ‘나’를 포함해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어휘들이 자신의 AAC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적절한 내러티브 산출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휘들을 그들의 어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연령 집단별 전체낱말수는 4세 집단 4,940개, 5세 집단 5,728개, 6세 집단 6,654개였으며 다른낱말수는 4세 집단 1,537개, 5세 집단 1,901개, 6세 집단 2,223개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낱말수와 함께 다른낱말수가 증가하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원래 이야기와 중복되지 않는 어휘는 5세 집단 59.5%, 6세 집단 65.92%로 연령이 높을수록 원래 이야기에 포함된 어휘의 영향을 덜 받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

‘그’, ‘저’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이는 Crestani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연령집단이 아동의 어휘사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속사와 관형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AAC 중재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AAC 사용자의 어휘 항목 선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들의 연령에 따른 어휘 요구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핵심어휘 목록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어휘 목록과 비교할 때, 접속사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체를 수집한 Lee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상위 핵심어휘는 ‘하다’, ‘나’, ‘이거’, ‘야’, ‘너’, ‘되다’, ‘것’, ‘안’, ‘친구이름’ 등이었고,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체를 수집한 Kim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하다’, ‘나’, ‘것’, ‘나’, ‘야’, ‘있다’, ‘보다’, ‘안’, ‘애’, ‘가다’ 등이 상위 핵심어휘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있다’, ‘그런데’, ‘하다’, ‘가다’, ‘그래서’, ‘그리고’, ‘나’, ‘엄마’, ‘때’, ‘주다’ 등이 상위 핵심어휘로 선정되었다. 기존의 어휘목록과 비교하여 내러티브 과제에서 접속사의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내러티브를 산출하고자 하는 AAC 사용자에게 필요한 어휘 항목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내러티브 과제를 활용한 어휘 리스트를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핵심어휘의 다른날말수는 212개로 아동의 전체 발화에서 산출된 어휘의 다른날말수의 37.2%에 불과하지만, 핵심어휘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였다. 소수의 핵심어휘가 전체어휘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AAC 중재 대상자를 위한 어휘 항목 선택 시 핵심어휘 목록의 활용은 AAC 중재 제공자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AAC 중재를 위한 어휘 선택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핵심어휘 목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핵심어휘 목록은 전무한 상황이다. 어휘 항목은 연령과 문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통한 핵심어휘 목록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상위 10개의 핵심어휘에서 나타난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35:65로 나타났고, 전체 핵심어휘에서 나타난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19:81로,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빈도가 높을수록 구조어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어휘수가 늘어날수록 내용어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고빈도 어휘 50개 중 구조어 33개, 내용어 17개로 구조어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Crestani 등(201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Crestani 등(2010)은 MacWhinney (1995)

의 정의에 따라 관사,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를 구조어에 포함시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관형사, 대명사, 접속사만을 구조어에 포함시켰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조어와 내용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 좀 더 다양한 언어적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일상 대화뿐 아니라 내러티브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어휘 사용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수어휘가 전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5%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 등(2005)과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 (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부수어휘는 개개인의 선호도 및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AAC 중재 제공자는 그 출현율에 상관없이 부수어휘 목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내러티브 구성 능력은 이후 학업과 문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로 간주된다. 특히 4-6세 아동들은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이 다양한 내러티브 구조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어린 AAC 사용자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사항이다. 다행히 본 연구 결과는 내러티브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많은 핵심어휘가 필요하지 않으며, 과제 및 연령을 고려한 어휘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AAC 체계를 구성할 때 기존의 어휘목록을 참고하되, 내러티브 산출을 또한 고려하여 중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어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내러티브 과제에서 아동이 산출한 발화를 수집하였으므로 내러티브에 필요한 다양한 어휘를 완전히 수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조어에 속하는 어미, 접사, 조사 등의 형태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내러티브 과제 및 상황을 통해 어휘를 수집하고, 학령기로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는 내러티브 산출 능력을 고려하여 학령기 이후 대상자에 대한 내러티브 수행 어휘를 분석하여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 상대에 따라 변화하는 어휘 사용 측면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대화 상대를 투입해 발화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과제를 통해 수집된 핵심어휘와 부수어휘가 AAC 사용자의 실제 내러티브 산출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중재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AAC 사용자의 내러티브 산출을 조기에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령전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체가 아닌 내러티브 과제를 활용해 직접 발화를 수집하고 핵심어휘 목록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Beukelman, D., & Mirenda, P. (2005).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upporting children and adults with complex communication needs* (3rd ed.).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Beukelman, D., & Mirenda, P. (2013).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upporting children and adults with complex communication needs* (4th ed.).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Beukelman, D., Jones, R., & Rowan, M. (1989). Frequency of word usage by nondisabled peers in integrated preschool classroom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5, 243-248.
- Caton, M., Crowe, L., & Haar, S. (2003). *Comparison of children's story retelling after one or three reading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ASHA Annual Convention, Chicago, IL.
- Cheon, C. K. (2000). *A research on basic vocabularies and sentences in the community for utiliz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syste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Choi, Y. J., & Han, D. O. (2013). A case study on a one-year-old infant's personal narrative during picture book reading.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4, 375-397.
- Crestani, C. A. M., Clendon, S. A., & Hemsley, B. (2010). Words needed for sharing a story: implications for vocabulary selection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5, 268-278.
- Grove, N., & Walker, M. (1990). The Makaton vocabulary: using manual signs and graphic symbols to develo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6, 15-28.
- Hughes, D. L., McGillivray, L., & Schmidek, M. (1997). *Guide to narrative language: procedures for assessment*. Eau Claire, WI: Thinking Publications.
- Kaderavek, J. N., & Sulzby, E. (1997). *Oral narratives and emergent bookreadings of typically developing and language impaired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Scottsdale, AZ.
- Kim, H. N. (2013). *A study on the personal narrative of children in the 3-year-old class shown in the conversational activities about the kindergarten experienc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Kim, Y. T., Hong, K. H., Kim, K.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im, Y. T., Park, H. J., & Min, H. K. (2003). School-aged children and adults' core vocabulary for the development of a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too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 93-110.
- Lee, H. J. (2003). *Hana got lost*. Seoul: Sigongsa.
- Lee, H. J. (2004). A study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s of narrative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 151-170.
- Lee, Y. M., Kim, Y. T., & Park, Y. H. (2005).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ore and fringe AAC vocabulary us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0, 134-152.
- MacWhinney, B. (1995).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Park, H. Y. (2009). *Study of semantic usage of language by the mentally retarded adults living in group hom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re and fringe vocabular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H. (1999). Development of an inventory of functional vocabulary for community functioning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3, 23-57.
- Park, Y. H. (1996). Core vocabulary for nonverb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3, 91-115.
- Park, Y.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ry structure concept and story-writing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Shapiro, L. R., & Hudson, J. A. (1991). Tell me a make-believe story: coherence and cohesion in young children's picture-elicited narra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960-974.
- Soto, G., & Hartmann, E. (2006). Analysis of narratives produced by four children who us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9, 456-480.
- Stuart, S., Vanderhoof, D., & Beukelman, D. (1993). Topic and vocabulary use patterns of elderly wome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9, 95-110.
- Trabasso, T., & Nickels, M. (1992). The development of goal plans of action in the narration of a picture story. *Discourse Processes*, 15, 249-275.
- Waller, A. (2006). Communication access to conversational narrative.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26, 221-239.
- Yeom, J. S. (1999). Understanding children's world through narrative inquiry: based on the study of children's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grade one. *Anthropology of Education*, 2, 57-82.

Appendix 1. Number of words for each narrative task

	TNS			NTW			ANW			NDW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Story retelling task	0	18	17	0	760	890	0	42	52	0	126	135
Personal experience task												
수영	19	18	17	403	407	503	21	23	30	97	158	171
병원	19	18	17	342	286	446	18	16	26	117	106	148
놀이터	19	18	17	340	386	464	18	21	27	136	123	139
생일	19	18	17	348	386	341	18	21	20	128	143	162
비행기	19	18	17	222	306	327	12	17	19	102	123	148
조부모	19	18	17	471	429	449	25	24	26	155	183	196
산타	19	18	17	335	240	386	18	13	23	131	116	165
버스	19	18	17	304	313	390	16	17	23	112	122	172
치과 의사	19	18	17	348	340	382	18	19	22	115	133	143
상처	19	18	17	347	290	369	18	16	22	108	127	155
Script narrative task												
그림1	19	18	17	269	272	275	14	15	16	55	67	68
그림2	19	18	17	295	313	347	16	17	20	102	96	123
그림3	19	18	17	294	362	360	15	20	21	82	86	91
그림4	19	18	17	301	343	372	16	19	22	102	108	111
그림5	19	18	17	321	294	368	17	16	22	95	84	96

TNS=total number of samples; NTW=number of total words; ANW=average number of words; NDW=number of different words.

Appendix 2. High frequency vocabulary by task type

Task 1. Story retelling task

No.	Vocabulary	Frequency	%	No.	Vocabulary	Frequency	%
1	개구리	113	6.848	6	하나(인물)	68	4.121
2	그래서	100	6.061	7	있다	64	3.879
3	엄마	96	5.818	8	전화	57	3.455
4	하다	86	5.212	9	할머니	55	3.333
5	장화	75	4.545	10	그런데	42	2.545

Task 2. Personal experience task

No.	Vocabulary	Frequency	%	No.	Vocabulary	Frequency	%
1	있다	415	3.807	6	때	249	2.284
2	하다	365	3.349	7	그래서	223	2.046
3	가다	349	3.202	8	그리고	210	1.927
4	그런데	345	3.165	9	타다	210	1.927
5	나	293	2.688	10	엄마	137	1.257

Task 3. Script narrative task

No.	Vocabulary	Frequency	%	No.	Vocabulary	Frequency	%
1	그래서	248	5.182	6	먹다	129	2.695
2	있다	209	4.367	7	그리고	123	2.570
3	그런데	201	4.200	8	주다	120	2.507
4	가다	193	4.033	9	숨사탕	118	2.466
5	하다	134	2.800	10	토끼	107	2.236

Appendix 3. High frequency vocabulary by age groups

Story retelling task

Rank	Group 2 (5;0-5;11)			Group 3 (6;0-6;11)		
	Vocabulary	Frequency	%	Vocabulary	Frequency	%
1	개구리	55	7.227	그래서	59	6.751
2	하다	49	6.439	개구리	58	6.636
3	엄마	44	5.782	엄마	52	5.950
4	그래서	41	5.388	전화	48	5.491
5	장화	37	4.862	장화	38	4.348
6	있다	31	4.074	하나(인물)	37	4.233
7	하나(인물)	31	4.074	하다	37	3.776
8	번호	27	3.548	있다	33	3.432
9	할머니	25	3.285	할머니	30	2.746
10	그런데	18	2.365	그런데	24	2.403

Personal experience task

Rank	Group 1 (4;0-4;11)			Group 2 (5;0-5;11)			Group 3 (6;0-6;11)		
	Vocabulary	Frequency	%	Vocabulary	Frequency	%	Vocabulary	Frequency	%
1	그런데	140	4.046	있다	149	4.404	있다	133	3.278
2	있다	129	3.728	하다	111	3.281	가다	127	3.130
3	하다	126	3.642	가다	103	3.045	하다	124	3.056
4	가다	119	3.439	그런데	91	2.690	때	119	2.933
5	나	116	3.353	나	84	2.483	그리고	118	2.909
6	아니	71	2.052	때	79	2.335	그래서	117	2.884
7	타다	64	1.850	그래서	76	2.247	그런데	114	2.810
8	사람이름	59	1.705	타다	62	1.833	나	93	2.292
9	때	51	1.474	엄마	48	1.419	타다	84	2.070
10	주다	50	1.445	것	47	1.389	안	64	1.578

Script narrative task

Rank	Group 1 (4;0-4;11)			Group 2 (5;0-5;11)			Group 3 (6;0-6;11)		
	Vocabulary	Frequency	%	Vocabulary	Frequency	%	Vocabulary	Frequency	%
1	있다	65	4.392	그래서	82	5.177	그래서	117	6.794
2	가다	62	4.189	가다	78	4.924	그런데	86	4.994
3	그래서	49	3.311	그런데	73	2.609	있다	78	4.530
4	하다	49	3.311	있다	66	4.167	그리고	62	3.600
5	먹다	43	2.905	먹다	51	3.220	하다	55	3.194
6	그런데	42	2.838	하다	49	3.093	가다	53	3.078
7	주다	41	2.770	주다	44	2.778	숨사탕	41	2.381
8	토끼	40	2.703	숨사탕	38	2.399	친구	37	2.149
9	숨사탕	39	2.635	토끼	35	2.210	먹다	35	2.033
10	고양이	34	2.297	오다	34	2.146	주다	35	1.858

Appendix 4. Frequency and percent of core word

No.	Vocabulary	Frequency	%	No.	Vocabulary	Frequency	%
1	있다	688	3.969	55	놀이터	50	0.288
2	그런데	588	3.392	56	오빠	50	0.288
3	하다	585	3.374	57	이빨	49	0.283
4	가다	570	3.288	58	받다	48	0.277
5	그래서	570	3.288	59	수염	48	0.277
6	그리고	351	2.025	60	어린이집	47	0.271
7	나	295	1.702	61	물	44	0.254
8	엄마	289	1.667	62	뛰다	43	0.248
9	때	261	1.506	63	동굴	43	0.248
10	주다	230	1.327	64	머리	43	0.248
11	보다	218	1.257	65	다치다	40	0.231
12	타다	215	1.240	66	치과	40	0.231
13	것	199	1.148	67	유치원	39	0.225
14	먹다	196	1.131	68	가게	38	0.219
15	할머니	165	0.952	69	소시지	38	0.219
16	오다	147	0.848	70	타보다	37	0.213
17	친구	145	0.836	71	다음	37	0.213
18	집	143	0.825	72	비행기	37	0.213
19	놀다	135	0.779	73	크리스마스	37	0.213
20	할아버지	134	0.773	74	이(지시)	36	0.208
21	아빠	131	0.756	75	이다	36	0.208
22	숨사탕	118	0.681	76	게임	36	0.208
23	사람이름	114	0.658	77	동보	36	0.208
24	크다	114	0.658	78	병원	36	0.208
25	여기	113	0.652	79	이렇게	36	0.208
26	개구리	113	0.652	80	쓰다	35	0.202
27	안	110	0.635	81	잡다	35	0.202
28	토끼	107	0.617	82	케이크	35	0.202
29	아니	107	0.617	83	만날	35	0.202
30	그	90	0.519	84	어디	34	0.196
31	같이	88	0.508	85	빠다	33	0.190
32	고양이	87	0.502	86	조금	33	0.190
33	선물	87	0.502	87	없다	33	0.190
34	나다	83	0.479	88	요리	32	0.185
35	되다	81	0.467	89	같다	32	0.185
36	울다	77	0.444	90	늦다	31	0.179
37	장화	75	0.433	91	번	31	0.179
38	그러면	74	0.427	92	아이	31	0.179
39	그냥	73	0.420	93	많다	31	0.179
40	아프다	72	0.415	94	자다	30	0.173
41	생일	70	0.404	95	해주다	30	0.173
42	버스	69	0.398	96	수영장	30	0.173
43	하나(인물)	68	0.392	97	약	30	0.173
44	들어가다	63	0.363	98	피	30	0.173
45	그네	60	0.346	99	두	29	0.167
46	비	60	0.346	100	넘어지다	29	0.167
47	재미	58	0.335	101	사주다	29	0.167
48	다	58	0.335	102	화나다	29	0.167
49	전화	57	0.329	103	밤	29	0.167
50	사다	56	0.323	104	번호	29	0.167
51	미끄럼틀	56	0.323	105	못	29	0.167
52	산타	55	0.317	106	놓치다	28	0.162
53	좋다	55	0.317	107	물고기	28	0.162
54	맞다	50	0.288	108	부딪히다	27	0.156

(Continued to the next page)

Appendix 4. Continued

No.	Vocabulary	Frequency	%	No.	Vocabulary	Frequency	%
109	낙서	27	0.156	161	더	16	0.092
110	사람	27	0.156	162	맛있다	16	0.092
111	뽑다	26	0.150	163	앞	15	0.086
112	춤다	26	0.150	164	열	15	0.086
113	박	25	0.144	165	형	15	0.086
114	생선	25	0.144	166	잘	15	0.086
115	옛날	25	0.144	167	한	14	0.081
116	무섭다	25	0.144	168	거기	14	0.081
117	어떤	24	0.138	169	가보다	14	0.081
118	나가다	24	0.138	170	나오다	14	0.081
119	눅다	24	0.138	171	잃어버리다	14	0.081
120	놓다	24	0.138	172	애	14	0.081
121	붙이다	24	0.138	173	치료	14	0.081
122	구름	24	0.138	174	낮다	14	0.081
123	밴드	24	0.138	175	가지다	13	0.075
124	연못	24	0.138	176	걸다	13	0.075
125	뭐	23	0.132	177	젖다	13	0.075
126	언제	23	0.132	178	길	13	0.075
127	나타나다	23	0.132	179	남자	13	0.075
128	아침	23	0.132	180	상처	13	0.075
129	장난감	23	0.132	181	애	13	0.075
130	튜브	23	0.132	182	하늘	13	0.075
131	새다	22	0.127	183	그렇다	13	0.075
132	찍다	22	0.127	184	물어보다	12	0.069
133	선생님	22	0.127	185	올라가다	12	0.069
134	차	21	0.121	186	동생	12	0.069
135	파티	21	0.121	187	이(신체)	12	0.069
136	이거	20	0.115	188	주사	12	0.069
137	걸리다	20	0.115	189	다시	12	0.069
138	따라가다	20	0.115	190	떨어지다	11	0.063
139	얹다	20	0.115	191	빨다	11	0.063
140	찾다	20	0.115	192	결혼식	11	0.063
141	명	20	0.115	193	공부	11	0.063
142	전화번호	20	0.115	194	누나	11	0.063
143	너무	20	0.115	195	물놀이	11	0.063
144	던지다	19	0.109	196	또	11	0.063
145	만나다	19	0.109	197	빨리	11	0.063
146	감기	19	0.109	198	하나	11	0.063
147	당근	19	0.109	199	다니다	10	0.058
148	참다	18	0.104	200	도망가다	10	0.058
149	개	18	0.104	201	씩다	10	0.058
150	손	18	0.104	202	알려주다	10	0.058
151	야기	18	0.104	203	로봇	10	0.058
152	야옹이	18	0.104	204	문	10	0.058
153	제주도	18	0.104	205	유치원	10	0.058
154	내리다	17	0.098	206	코	10	0.058
155	바르다	17	0.098	207	학교	10	0.058
156	사진	17	0.098	208	계속	10	0.058
157	텔레비전	17	0.098	209	무릎	9	0.052
158	날	16	0.092	210	생각	9	0.052
159	살	16	0.092	211	시소	9	0.052
160	죽	16	0.092	212	막	9	0.052

Appendix 5. Fringe vocabulary

Category	Example				
활동 및 경험	슬래잡기	축구	딱지	물총	숨바꼭질
	발레	고무줄	알레르기	영어뮤지컬	캠핑
특정인물 및 캐릭터	외할아버지	도둑	경찰관	삼촌	이모
	티라노사우루스	단군할아버지	라퐁젤	수지	사촌
장소	시골	키즈카페	휴놀이터	말레이시아	파리바게트
	홈플러스	양평	워터파크	서점	성심병원
소유물	레고	라바	뽀로로	또봇	목도리
	컴퓨터	목걸이	가방	라바인형	점퍼
음식	떡볶이	굴	사탕	블루베리	오징어
	아이스크림	도넛	파인애플	햄버거	시금치
상태 표현	바뀌다	망가지다	시들다	슬프다	심하다
	조그맣다	고맙다	괜찮다	썩다	속상하다
동작 표현	놀리다	때리다	빼주다	쫓아가다	깨물다
	뚫리다	뺄다	없애다	할퀴다	튀기다

국문초록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휘사용 특성: AAC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송혜정¹ · 송양민² · 박현주¹

¹가천대학교 특수치료학과 언어치료전공, ²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배경 및 목적: 보완대체 의사소통 영역에서 어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 대상의 어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발화를 수집하여 낱말 단위로 분석한 후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4-6세 일반아동 53명(남 26명, 여 27명)으로, 이들은 3가지 내러티브 산출과제(이야기 다시 말하기, 개인적 경험 말하기, 이야기 구성하기)를 수행하였다. 산출된 발화는 과제유형과 연령집단에 따른 고빈도 어휘, 전체어휘에서 핵심어휘가 차지하는 비율, 핵심어휘에서 나타나는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 전체 과제에서 나타나는 부수어휘 및 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고빈도 어휘는 과제 및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어휘는 전체낱말의 72%를 차지하여 소수의 핵심어휘가 전체어휘의 많은 부분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어와 내용어의 비율은 19:81로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부수어휘가 전체낱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5%로 낮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어린 아동의 어휘 사용은 과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확인하였다. 대체어가 아닌 긴 이야기를 수집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핵심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보완대체 의사소통, 내러티브, 핵심어휘, 부수어휘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참고문헌

- 김영태, 박현주, 민흥기(2003).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개발을 위한 학령기 아동 및 성인의 핵심어휘 조사. *언어청각장애연구*, 8, 93-110.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홍남(2013). 유치원의 경험 이야기나누기 활동에서 나타난 만 3세반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특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1999). 정신지체학생의 지역사회 기능에 필요한 기능적 어휘 목록 개발연구. *재활복지*, 3, 23-57.
- 박은주(2009). 만 3, 4, 5세 유아들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과 쓰기 발달간의 관계.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1996).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를 위한 기초어휘조사: 뇌성마비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13, 91-115.
- 박혜연(2009).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성인의 핵심어휘 및 부수어휘 분석을 통한 의미적 언어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 57-82.
- 이영미, 김영태, 박은혜(2005). 학령기 아동의 학교상황 어휘 연구: AAC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0, 134-152.
- 이형진(2003).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서울: 시공주니어.
- 이혼정(2004). 내러티브의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교육학연구*, 10, 151-170.
- 천준경(2000).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체계 활용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기초 어휘 및 문장 조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한동옥(2013).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 나타난 개인적 내러티브 사례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 375-397.